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491 - 536

대안적 특수교육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MATP)을 중심으로

황상현*·정정환·배건환*****

이 연구는 의료담론에 의해 축소·은폐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실천적 행위를 통해 해체·재구성하기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구진은 MATP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8명과 동료교사 4명, 보조인력 6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성찰일지, 교사학습공동체 정기협의회, MATP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서류도 수합하였다. 연구자료는 모두 전사한 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중 개별기술적(Idiographic) 6단계 주제분석의 과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교별 MATP 운영에 대한 특성과 중도·중복장애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 변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인식 변화 과정의 범주어는 '풀지 못한 숙제 : 미로 같은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활동', '무조건적인 긍정적 박수: 의도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해체의 시작 : 인본주의 교육실천'으로 제시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타자 중심의 교육활동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급 내 권력의 이양을 통해 학생의 변화에 가시성을 부여했고, 전체 학습 목표가 아닌 개별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면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전공, 박사수료
** 춘천동원학교, 특수교사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전공, 박사과정

서 교수학습활동의 중심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을 '할 수 있음'으로 인식하였고, 사회 내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매 순간 연구참여자는 끊임없이 실행과 반성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타자 중심의 교육 실천은 단순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진실한 주체와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중도·중복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실행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유익을 준다. 사회의 불평등을 성찰하고 해소하려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진실한 나, 고양된 영혼을 가진 주체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주제어 : 비판적 실행연구,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중도·중복장애, 교사학습공동체

KOR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장애 담론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개인의 경험부터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의료모델(medical model)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진숙, 2015; 여형남 외 2018; 조한진 외 2013). Foucault의 사유에 천착하여 이해하면 근대 의료체계에 근거한 의료적 접근은 인간의 몸을 관찰 가능한 투명한 대상이 되도록 강요하고 객관적 지식으로 가득 채운 하나의 공간으로 해석한다(Foucault, 1963/2006). 의료적 담론 내에 위치하는 장애인의 몸 역시 마찬가지이다. 담론의 지식·권력은 투명해진 장애인의 몸 위로 각종 학문영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객관적 평가도구를 교차시키며 장애인의 몸을 '아픈 몸'이자 '교정이 필요한 몸', '타인 의존적인 몸'과 같은 개인적 비극의 결과로 재현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도·중복장애는 정상이라는 규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즉 가장 주변화(marginalized)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은 저마다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자녀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의 신화 형태로 내면화한다(황상현, 노형규, 2021). 결과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생활 스케쥴은 각종 치료, 재활 서비스로 짜여진다. 물론 치료적 관점에서 개인의 손상을 개선하는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능적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적 치료활동은 담론 안에서 권력으로 작동하며 그들을 '아픈 몸', '의존적인 몸'이라는 객체화된 자아로 호명하는 동시 또 다른 타자화의 기제로 작동한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라는 Nietzsche의 주체성 이론과 같이 인간의 주체성은 절대적 중심성을 가지지 않는다(정낙림, 2006). 능동적인 힘들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주체성은 상대적이며 다원성을 가지며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둘러싼 아픈 몸, 의존적인 몸, 치료받아야 하는 몸과 같은 의료담론은 담론의 행위자로 하여금 제한적인 방식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기존 담론의 자장 안에 존재하는 특수학교에서도 이러한 타자화의 메커니즘은 발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담론의 권력은 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 아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이 가진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주변화를 극복하고자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구성주의적,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근거하여 중도·중복장애 교육에 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선미 외(2020)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의 부재, 학급당 학생 수 과다, 부적절한 교과서와 지도서, 부족한 교수-학습자료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어려움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한 명에게 1시간

수업 중 약 5-10분 정도의 시간 할애로 이어졌다. 이는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김은주 외, 2013)으로 중도·중복장애 교육현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체육교과 담당 교사들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전반적인 교수학습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체육수업 장소, 중도·중복장애를 위한 용기구, 외부 시선 등의 추가적인 부담감을 토로했다(고진복 외, 2013).

이를 종합하면 교사들이 경험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주로 수업의 내용, 즉 단위 수업부터 교육과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콘텐츠, 적절한 교구의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한국사회와 연계한 담론과 담론의 실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형성체가 중도·중복장애와 관련된 학교와 교사 문화의 형성에 권력을 발휘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반하는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단위 수업,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이 아닌 학교 문화로 맥락화시켜 스포츠 활동(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이하 MATP)을 중심으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이하 MATP)는 스페셜올림픽 공식 종목에 참여하기 어려운 참가자들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활동이다. 주로 중도·중복 장애인이 참여하며, 신체활동 기술의 향상을 포함해 스포츠 선수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제공,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가진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황상현 외(2020)는 12주간 MATP에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 장애인이 ‘주인공 됨’을 경험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는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몸의 이야기를 ‘무능력한 몸’에서 ‘할 수 있는 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MATP가 특수학교 안에서 실행될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몸의 의미 변화와 함께 의료모델에 대한 대안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Feiman-Nemses & Floden(1986)은 교직문화에 대해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생각을 나누는 동료 교사는 없다고 표현하며 개인주의와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내에서 MATP라는 낯선 활동의 시행은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아닌 자발적 공동체의 조직,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담론이 학교 문화, 교사의 의식과 교섭한다는 전제 아래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과 연구자가 협동하여 MATP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 실행연구(critical action research)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특수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실행연구는 주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주제로 단일학교(급)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강성구 외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ATP 운영이라는 상

KOR VOICEYE voiceye.com

황 속에서 3개 학교 교사들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가 실행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그러한 경험이 가지는 기존 담론과의 차이, 그리고 교직·학교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맥락적 조정만으로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발굴해야 한다는 실행연구의 근본적 목적과 일치한다. 낯선 프로그램의 기획, 시간표 조정, 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장소 탐색, 다른 교사들에 대한 시선 등 MATP 실천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마주할 것이다. 3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교사공동체의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MATP 실행을 위한 맥락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다른 학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지를 발굴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생성된 지식이 다른 현장의 맥락적 특성과 이어져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실천적 행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둘째, MATP를 실행하는 자발적 교사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교직, 학교문화의 관점에서 대안문화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 중도·중복 장애학생 교육활동의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교사 전문성 혹은 콘텐츠의 부재가 아닌 관계적, 구조적 관점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문제가 고정된 것이 아닌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전제는 중도·중복장애 교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결 방향을 탄력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동시에 제한적인 주제와 범위로 실시되는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어떻게 MATP를 실행하였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실행하는 체육프로그램인 MATP가 3개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었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2. MATP를 실행하는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은 무엇이고 대안문화의 형성 가능성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점차 중도·중복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현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주선, 한경근, 2018). 기존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나타내는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제한점으로 교육보다는 보육에 가까운 교육이 제공되었고, 개인 내, 개인 간 격차로 인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수준에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박경옥, 2011; 이희연 외, 2018).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일상생활, 의사소통 중점으로 실시되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경우는 전무했고, 학급당 중도·중복장애 학생 수의 과다, 교수-학습자료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이 제공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2013; 표윤희 외, 2016).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선미 외(2020)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충실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개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의 기능적 특징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적용과 학습자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연 외(2021)는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나인정, 이미숙(2021)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기존에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의 홍보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의 개선과 같이 결과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 물론 교육과정의 개선과 자료 개발은 교수·학습활동에서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은 단편적이고 분절된 활동이 아닌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실천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과 함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2. 비판적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마주한 상황을 개선하고 실행가와 현장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뤄 수행하는 연구 방식을 의미한다(Greenwood & Levin, 2007). 실행연구는 교사의 내재적이고 자발적 성찰에 기초하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성열관, 2006). 하지만 기존에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는 여러 부분에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강성구 외(2019)는 실행연구 대부분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실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교실 차원, 즉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행연구가 교사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성찰적 탐구로 이어져야 하고, 학급 차원을 넘어 단위학교, 단위학교 밖의 사회 구조 문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로의 도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실천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socially-constructed)되고 역사적으로 체현(historically-embedded)되었음(Carr & Kemmis, 1986)을 전제로 삼는 비판적 실행연구는 사회 구조 안에서 교육적 실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비판적 실행연구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하였고 해방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김미옥, 2009). 즉 현장의 문제를 단순히 기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해체·재구성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론적 해방을 강조한다(조용환, 2015). 그러므로 비판적 실행연구에서는 현장의 문제 안에 내재된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자들의 성찰로써 드러낸다(이용숙 외, 2005).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한 교육활동 역시 무중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를 넘어 사회의 담론과 이미 교섭하고 있다. 따라서 3개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하는 MATP에 관한 비판적 실행연구는 학급차원, 다시 말하면 교사 개인의 경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담론 행위를 실천하는 학교 문화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권력 관계가 해체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MATP)

MATP는 스페셜올림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도(severe), 중복(multiple), 그리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참여자들에게 스포츠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MATP의 대상은 스페셜올림픽 정식 스포츠 종목에 참여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포함)를 포함한 기타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진 사람으로 MATP를 통해 수정·변형된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MATP의 기본 방향성은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MATP Coaching Guide에 "MATP는 어떠한 선수도 배제하지 않는다(Special Olympics, 2005, p. 4)."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선수들이 가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집중하기보다 주변 환경의 조정(adjustment)을 꾀한다는 점에서 장애담론 중 사회모델(social model)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MATP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참여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능력(ability)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Special Olympics, 2005).

MATP는 참가자들을 선수로, 교사 및 지도자는 코치로 호명한다. 이러한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MATP의 프로그램은 참가 선수들의 수준과 특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수 욕구(needs)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선수에게 최적화된 기자재를 활용한다. 이러한 선수 중심의 MATP 구조는 프로그램 한 가운데 선수를 위치시킨다. 그 결과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로부터 받는 환호와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받는 박수는 동정이 아닌 성취에 대한 격려이자, 비주도적이고 통제하지 못했던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을 제공한다(황상현 외, 2020).

또한 MATP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inclusion)이라는 스페셜올림픽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한다. MATP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퍼포먼스가 과거 자신의 스포츠 참여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며 연대 의식을 향상시켰다(황상현 외 2020). 즉, MATP에는 사회와 연대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MATP는 'Come and Try(이하 컴 앤 트라이)', 'Training(이하 트레이닝)', 'Challenge Day(이하 챌린지데이)'의 순서로 진행한다. MATP는 약 8주에서 12주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MATP에서 스포츠활동 기간을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선수라고 호명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스포츠 참여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먼저 컴 앤 트라이는 MATP의 쇼케이스의 성격을 지닌다. 선수와 부모들이 MATP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이며 컴 앤 트라이에서 향후 MATP 활동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선수들은 컴 앤 트라이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은 컴 앤 트라이 이후 약

KOR VOICEYE voiceye.com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에 기관 상황에 적합하도록 운영한다.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챌린지데이에서 각 선수마다 수행할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코치들은 트레이닝을 운영하면서 선수마다 개별화된 스포츠 종목을 탐색해야 한다. 이때 종목은 기존의 스포츠 종목이 아닌 개별 선수들이 연습하였던 활동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챌린지데이는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통해 연습한 스포츠 기술을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형성 평가의 목적을 지닌다. 즉, 챌린지데이는 트레이닝 과정의 연속선 상에서 실시되며 현재 수행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특히 챌린지데이에서 선수들은 관중의 박수와 격려, 메달 수여 등을 통해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MATP는 중도·중복장애를 가지며 복합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위해 고안된 스포츠 활동이다. 물론 MATP만의 고유한 활동, MATP만의 독특한 장비, MATP만의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체육현장에서 소외되었던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과 진행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따라서 MATP의 실행은 단순히 체육활동뿐만 아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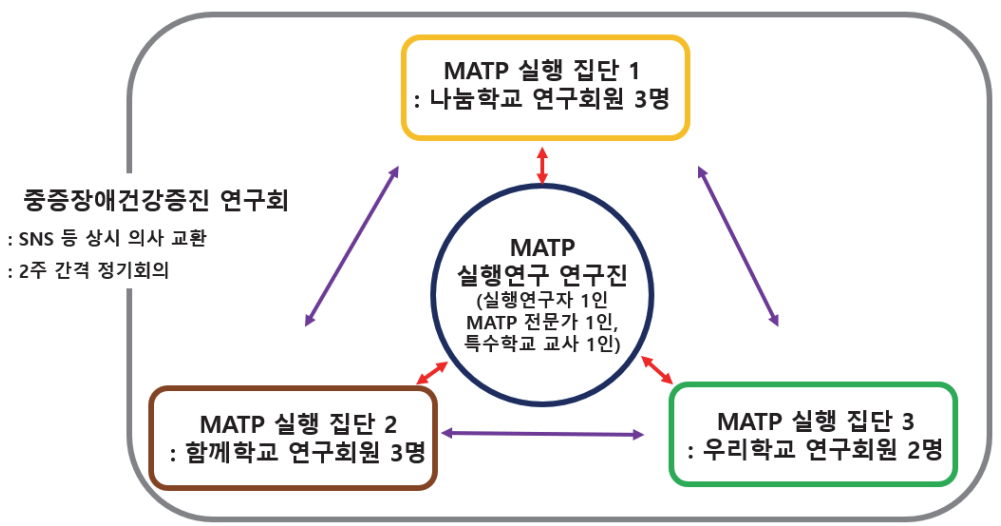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 내 존재하는 장애 관련 담론과 학교, 교사가 상호 교섭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교육 활동에서 주변화시키는 담론에 대한 대안담론의 형성 과정을 MATP 실행과 성찰에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의 비판과 개선, 즉 문제를 기능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며 권력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비판적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A도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와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연구참여자인 동시에 각 학교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MATP를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MATP의 실행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직·학교문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대안담론의 형성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1. MATP 실행의 맥락과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스포츠활동의 실행을 위해 MATP를 선정하였다. MATP는 스페셜올림픽에서 운영하는 하위 프로그램으로 중증, 중복, 그리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참여자들을 고안된 스포츠활동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보통 컴 앤 트라이, 트레이닝, 챌린지데이 단계로 진행되지만, 참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MATP를 실행하기 위해 A도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3개의 특수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스포츠활동인 MATP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실행연구자, MATP 전문가, 현장의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3개 학교의 성공적인 MATP 실행을 위해 실행연구 연구진은 교사학습공동체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실행연구자와 MATP 전문가는 각 학교 MATP 대표 담당자와는 수시로 전화와 SNS를 통해 의사 교환을 하면서 MATP의 기획,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림 1〉 MATP 실행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

KCI VOICEYE voiceye.com

연구진은 교사학습공동체가 MAT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 과정에서 공통된 목표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MATP 연수를 실시하였다. MATP 연수는 교사학습공동체 이외에 성공적인 MATP 운영을 위한 학교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기존 계획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Covid-19)로 인해 외부자 출입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나눔학교와 우리학교는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zoom)을 이용하였고, 함께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MATP 연수 이후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정기협의회를 기획(9월 14일, 10월 1일, 10월 15일)하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정기협의회는 11월 10일에 면대면으로 진행하였고, 그간 MATP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행연구자는 각 학교마다 MATP를 기획, 준비하면서 운영진이 공동 목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협의회에서 각 학교의 MATP 담당자는 MATP 준비 과정과 운영 내용,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교사학습공동체 회원들은 MATP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학교마다 다양한 학교 규모, 그에 따른 교직 문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MATP 실행을 위한 인력 풀 등 그 특성이 다양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의 통일된 방식의 MATP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방식으로 MATP를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근거해 각 학교 운영진은 MATP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동시 학교 상황에 적절하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MATP를 계획·운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MATP를 운영하는 A도의 교사학습공동체 특수교사 8명을 주 연구참여자, 교사학습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4명의 특수교사, 6명의 보조인력을 보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주 연구참여자이면서 실제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MATP를 기획하고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MATP를 실행하는 과정을 자기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수정된 계획 수립, 재실행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8명으로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다. 주 연구참여자 이외에 학교 내 대안문화로서의 교육실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비회원 특수교사 6명과 특수교육보조인력 6명을 보조 연구참여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	나이(세)	경력(년)	직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	a	남	35	3	교사
	b	여	34	9	교사
	c	여	34	10	교사
	d	남	37	9	교사
	e	남	31	5	교사
	f	남	36	11	교사
	g	여	35	10	교사
	h	여	40	16	교사
교사학습공동체 비참여 교사	i	남	34	7	교사
	j	여	38	14	교사
	k	남	48	22	교사
	l	여	43	18	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m	여	46	4	특수교육지원사
	n	여	53	3	특수교육지원사
	o	남	25	1	사회복무요원
	p	남	24	1	사회복무요원
	q	남	27	1	사회복무요원
	r	여	49	-	방역지원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들과 개별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과정을 참여관찰하였다. 개별인터뷰는 모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주 연구참여자들은 평균 2회 약 60-70분 동안 비구조화인터뷰를, 보조 연구참여자는 평균 1회 약 20-30분 동안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실시하였고 면대면 인터뷰가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이후 추가 인터뷰는 전화를 통해 시행하였다. 각 학교마다 1회씩 평균 1시간 30분가량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개별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공동경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연구진은 현장의 생생함을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최대한 시도하였으나 연구진 중 한 명이 재직 중인 나눔학교 이외에는 코로나로 외부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학교와 우리학교의 컴 앤 트라이에는 연구진 방문이 허용되어 현장관찰과 필드노트를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온라인 비대면 정

KOR VOICEYE voiceye.com

기협의회를 녹화한 영상, SNS 의사소통, 연구참여자와 비정기적인 통화한 내용과 함께 연구참여자가 MATP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성찰일지도 연구자료로 포함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서 수립한 MATP 운영계획서, 운영결과보고서 등의 행정 자료도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ith, Flowers & Larkin(2009)이 해석적 현상학 연구(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방법론에서 제시한 개별기술적(Idiographic) 6단계 주제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개별기술적 주제분석은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순차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 A의 면담 자료를 반복 숙독하고 2단계에서는 필사본 여백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3단계에는 떠오르는 주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며 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 4단계에서는 추상화와 맥락화를 통해 주제들의 상위 범주어를 만들어나가며, 5단계에서는 다른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당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관통하는 형식을 찾는다(Boyd & Goodwin, 2019). 6단계의 과정은 명확한 단계의 구분보다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점검(member checks),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내용을 일차적 자료 제공자인 주 연구참여자와 보조 연구참여자에게 점검받음으로써 연구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포함시키며 연구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과도한 주관적 편향성과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 경험 이외에도 포커스집단인터뷰, 비대면 온라인 정기회의, 학교별 운영계획서, 현장관찰 등을 시행함으로써 단편적인 자료 수집 및 해석을 예방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교별 MATP 실행의 특징

1) 나눔학교

나눔학교는 4명의 교사가 MATP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다. 4명은 모두 표시과목이 체육인 교사들로 체육을 전공하였고, 평상시 체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였다. 초기 나눔학교의 MATP 운영안은 교사 개개인이 학생 선정 후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컴 앤 트라이를 1주일 앞두고 실시한 협의회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MATP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소함, 표시과목이 체육이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운영에서 공동 운영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MATP 운영진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나눔학교의 MATP는 초등, 중등 과정의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도 부족한 시간(코로나로 인해 점심시간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고 과정별 순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운영을 하였다.

나눔학교는 1주차(주 3회)를 컴 앤 트라이 기간으로 잡고, 2주차부터는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학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학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 선수를 선발하였지만, 그동안 교과 교실 수업에서 보던 모습과 체육활동에서의 학생 선수의 수행 능력은 매우 달랐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는 크게 유용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처음으로 지도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어려움은 협력 교수 능력의 부재였다. 그동안은 교사 개인이 주도하는 수업만 진행해왔기에 자신만의 독특하고, 안정적인 교수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5명의 교사가 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개인 중심 교수방법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공감하였고,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을 갖고자 하였다. 이 무렵 함께학교 운영진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협의회는 MATP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후 6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된 시점이라 즐겁게 운영을 할 수 있었다. 학생 간, 코치 간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 심리도 발생하며 활동이 진행되었다. 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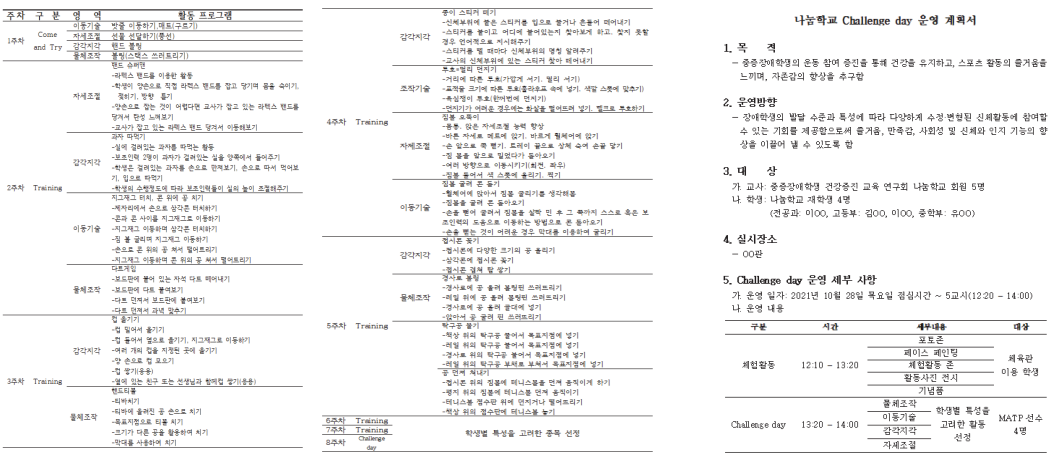
KCI VOICEYE voiceye.com

닝 후반부에는 챌린지데이에서 선보일 종목을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트레이닝을 거듭하면서 학생의 향상 정도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챌린지데이에서 수행할 종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상하며 준비를 하였다.

챌린지데이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한 후 교장, 교감 선생님의 승인을 받았다. 두 번째 각 반 담임교사에게 안내하고 시간표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교과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이때 지체장애 과정은 인원수가 적어 모두 챌린지데이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시간표 교체하거나 담임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주제통합 수업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인원수가 많은 지적장애 과정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부탁하였고, 별도의 학습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부(체육관 담당 부서)와 운영진이 챌린지데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체육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급에 양해의 안내를 했다. 이렇게 챌린지데이를 위한 학교 내부 문제는 해결하였고, 본격적으로 챌린지데이를 준비할 수 있었다.

챌린지데이는 크게 2파트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파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챌린지데이의 홍보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실시하였고, 2파트가 본격적인 챌린지데이였다. 이때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학생이 몰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았고, 평상시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컴 앤 트라이와 마찬가지로 교감선생님께서 개회사와 개회 선언을 해줌으로써 나눔학교의 인정을 받는 챌린지데이가 시작되었다. 챌린지데이를 운영하는 동안 각 반 친구들이 와서 열띤 응원을 해주었고, 금지되었지만 학부모님 한 분이 참여하여 활동을 관람하였다. 또한 보조인력(4명), 각 반 담임교사(3명), 해당 수업 교과 교사(2명)이 선수를 응원하고, 진행하는 회원들을 도와주었다. 미리 공지되지 않았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 도와주는 등 챌린지데이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나눔학교의 챌린지데이는 막을 내리고, MATP 역시 막을 내렸다.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운영이었지만 연구회원 5명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4명의 선수에게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였다. 5명의 회원 모두 MATP의 지속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시간이다.



주차	구분	영역	활동 프로그램
1주차	Come and Try	이동기술	밧줄 이동하기 매트구조기
		자세조절	선을 선달하기(풍선)
		감각지각	탠드 플링
		몰체조작	플링(스펀스 스러트리기)
2주차	Training	자세조절	탠드 슈팅 -라렉스 탠드를 이용한 활동 -학생이 맛춘으로 직접 라렉스 탠드를 잡고 당기며 공을 쑤이기, 절하기, 맛탕 플기 -맛춘으로 맛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가 잡고 있는 라렉스 탠드를 당겨서 탄성 느껴보기 -교사가 잡고 있는 라렉스 탠드 당겨서 이동해보기
		감각지각	과어 마주기 -실에 걸려있는 과자를 따먹는 활동 -보조인력 2명이 과어가 걸려있는 실을 양쪽에서 들어주기 -학생은 걸려있는 과자를 손으로 만져보기, 손으로 따서 먹어보기, 입으로 따먹기 -학생의 수행정도에 따라 보조인력들이 실의 높이 조절해주기
		이동기술	지그재그 위치, 존 위에 공 치기 -제자리에서 손으로 상근존 터치하기 -존과 존 사이를 지그재그로 이동하기 -지그재그 이동하며 상근존 터치하기 -짐 볼 굴리며 지그재그 이동하기 -손으로 존 위에 공 써서 떨어트리기 -지그재그 이동하며 존 위에 공 써서 떨어트리기
		몰체조작	다트게임 -보드판에 붙어 있는 자석 다트 떼어내기 -보드판에 다트 붙여보기 -다트 던져서 보드판에 붙여보기 -다트 던져서 과녁 맞추기
3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컵 올기기 -컵 밑에서 올기기 -컵 들어서 멀으로 올기기, 지그재그로 이동하기 -여러 개의 컵을 지정된 곳에 올기기 -양 손으로 컵 포로기 -컵 쌓기(중형)
		몰체조작	-멀에 있는 친구 또는 선생님과 함께 컵 쌓기(중형) 탠드다플 -터버치기 -터버에 올려진 공 손으로 치기 -특표지점으로 타플 치기 -조기기 다른 구플 활용하여 치기 -막대를 사용하여 치기

4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종이 스티커 떼기 -신체보위에 붙은 스티커를 힘으로 뜰거나 혼들어 떼어내기 -스티커를 붙이고 어디에 붙어있는지 찾아보기 하고, 찾기 복합경로 인식적으로 어시해주기 -스티커를 힘 떼어다 신체보위의 명칭 알려주기 -교사의 신체보위에 있는 스티커 찾아 떼어내기
		조작기술	포로+발력 던지기 -거리에 따른 조비(가깝게 서기, 멀리 서기) -표적을 크기에 따른 포비(플라스틱 라에 넣기, 색깔 스폿에 맞추기) -속심별 포로(한라번에 던지기) -던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상을 멀어트려 넣기, 벨크로 포로하기
		자세조절	질볼 호동이 -몸통, 맛은 자세조절 능력 향상 -바른 자세로 매트에 앉기, 바르게 월체어에 앉기 -손 맛으로 쭉 뻗기, 트레이 끝으로 상체 숙여 손을 맞기 -질 볼을 맛으로 밀었다가 들어오기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키기(위한, 바로) -질볼 들어서 색 스폿에 올리기, 찍기
		이동기술	질볼 굴려 존 올기 -월체어에 앉아서 질볼 굴리기를 생각해볼 -질볼을 굴려 존 들아오기 -손을 뻗어 굴려서 질볼을 살짝 민 후 그 후에서 스스로 혹은 보조인력의 도움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존 들아오기 -손을 뻗는 것이 어려운 경우 막대를 이용하여 굴리기
5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철서존 올기 -철서존에 다양한 크기의 공 올리기 -상각존에 철서존 올기 -철서존 경계 밖 맞기
		몰체조작	양어로 볼링 -경사로에 공 올려 볼링핀 쓰러트리기 -레일 위에 공 올려 볼링핀 쓰러트리기 -경사로에 공 올려 골인에 넣기 -양어로 공 굴려 핀 쓰러트리기
		감각지각	탁구공 올기 -책상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레일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경사로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먼절 위의 탁구공 보세로 보써서 목표지점에 넣기
		조작기술	공 던져 처내기 -철서존 위의 질볼에 터니스볼을 던져 충직이게 하기 -벽의 위의 질볼에 터니스볼 던져 올직이기 -터니스볼 정수만 위에 던지거나 떨어트리기 -책상 위의 절순많에 터니스볼 놓기
6주차	Training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7주차	Training		
8주차	Challenge day		

나눔학교 Challenge day 운영 계획서

1. 목 적
– 중증장애학생의 운동 참여 증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존감의 향상을 추구함

2. 운영방향
– 장애학생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정·변형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 만족감, 사회성 및 신체와 인지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

3. 대 상
가. 교사: 중증장애학생 건강증진 교육 연구회 나눔학교 회원 5명
나. 학생 : 나눔학교 재학생 4명
(전공과: 이00, 고등부: 김00, 이00, 중학부: 유00)

4. 실시장소
– 00관

5. Challenge day 운영 세부 사항
가. 운영 일자: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점심시간 ~ 5교시(12:20 – 14:00)
나. 운영 내용

구분	시간	세부내용	대상
체험활동	12:10 – 13:20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체험활동 존 활동사진 전시	체육관 이용 학생
		기념품	
Challenge day	13:20 – 14:00	몰체조작 이동기술 감각지각 자세조절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선정 / MATP 선수 4명

〈그림 2〉 나눔학교 MAPT 실행 프로그램 및 챌린지데이 운영 계획서

2) 우리학교

우리학교는 인구 약 5만명이 거주하는 소도시 규모의 도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이다. 우리학교의 학급수는 11개로 약 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수는 약 60명이다. 우리학교의 MATP 운영진은 이러한 작은 학교 규모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은 2명이었지만 우리학교는 중등부 전체 교사가 MATP 운영에 참여하였다. 운영진은 MATP와 같이 낯선 프로그램을 접하고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증과정의 교사가 약 10명이라는 점과 그 10명의 교사들이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학교 MATP 운영진은 이러한 상호 신뢰 위에 과거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 및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성취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중등 과정 교직문화는 MATP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로 이어짐과 동시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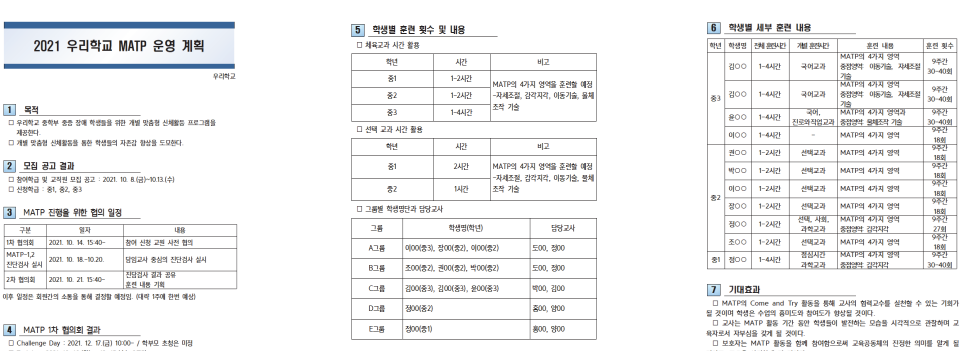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중 우리학교에 재직 중인 2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MATP의 교사 연수,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관리 등을 관리하였다. 우리학교의 MATP는 9월 8일 전체 교원연수를 시작으로 9월 9일 컴 앤 트라이를 실행하였다. 이후 교사학습공동체 회원인 연구참여자-n은 MATP 전문 연수를 각색하여 자체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우리학교 MATP 운영진은 MATP 참여 모집을 전체 학교에 공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청한 중 1, 중 2, 중 3 학급을 대상으로 MATP를 계획하였다. 우리학교에서는 트레이닝 준비를 위해 10월 14일에 1차 교사

KCI VOICEYE
voiceye.com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트레이닝, 12월 17일에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챌린지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MATP 운영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MATP를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가 가능했던 점은 MATP를 자유학년제 교원학습공동체에 접목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지도하는 중학부 모든 교사가 자유학년제 교원학습공동체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 융합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중학부 전체 학생에 대한 MATP 연계 교육과정의 기획으로 이어졌다. 비록 교육과정과 연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트레이닝, 챌린지데이 날짜가 지연되었으나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MATP를 운영할 수 있고, 하나의 과정 내의 모든 교원이 협력 교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학교 MATP의 트레이닝은 크게 전체 훈련과 개별 훈련이라는 두 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훈련시간은 주로 체육 교과수업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체육담당 교사가 중심이 돼서 중 1, 중 2, 중 3, 각 학년별 체육수업에서 MATP를 실행하였다. MATP 연수 이후 체육 선생님은 기존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학년별, 학생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목표 역시 다층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스테이션 방식의 순환식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개별 훈련은 주로 중 1학년, 중 2학년 학생들에게 집중되었으며 각 학생들의 선택교과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우리학교의 MATP는 중학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동과 교사 간 협조,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적 교수활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MATP 운영을 업무가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2021 우리학교 MATP 운영 계획

우리학교

1 목적

□ 우리학교 중학부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개별 맞춤형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한다.

2 모집 공고 결과

□ 참여학급 및 교직원 모집 공고 : 2021. 10. 8.(금)~10.13.(수)
□ 신청학급 : 중1, 중2, 중3

3 MATP 진행을 위한 협의 일정

구분	일자	내용
1차 협의회	2021. 10. 14. 15:40~	참여 신청 교원 사전 협의
MATP-1,2 진단검사 실시	2021. 10. 18.~10.20.	담임교사 중심의 진단검사 실시
2차 협의회	2021. 10. 21. 15:40~	진단검사 결과 공유 훈련 내용 기획

이후 일정은 회진단의 소통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 이때 1주에 한번 예상

4 MATP 1차 협의회 결과

□ Challenge Day : 2021. 12. 17.(금) 10:00~ / 학부모 초청은 미정
□ Training: 2021. 10. 18.(월) ~ 12. 15.(수), 9주간

5 학생별 훈련 횟수 및 내용

□ 체육교과 시간 활용

학년	시간	비고
중1	1-2시간	MATP의 4가지 영역을 균형할 예정 -자세조절, 감각자각, 이동기술, 물체조작 기술
중2	1-2시간	
중3	1-4시간	

□ 선택 교과 시간 활용

학년	시간	비고
중1	2시간	MATP의 4가지 영역을 균형할 예정 -자세조절, 감각자각, 이동기술, 물체조작 기술
중2	1시간	

□ 그룹별 학생명단과 담당교사

그룹	학생명(학년)	담당교사
A그룹	이00(중3), 장00(중2), 이00(중2)	도00, 정00
B그룹	조00(중2), 권00(중2), 박00(중2)	도00, 정00
C그룹	김00(중3), 김00(중3), 윤00(중3)	박00, 김00
D그룹	장00(중2)	윤00, 양00
E그룹	장00(중1)	홍00, 양00

6 학생별 세부 훈련 내용

학년	학생명	진행 회차수	개별 회차수	훈련 내용	훈련 횟수
중3	김○○	1-4시간	국어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이동기술, 자세조절 기술	9주간 30-40회
	김○○	1-4시간	국어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이동기술, 자세조절 기술	9주간 30-40회
	윤○○	1-4시간	국어, 진로와직업교과	MATP의 4가지 영역과 중점분야: 물체조작 기술	9주간 30-40회
	이○○	1-4시간	-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중2	권○○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박○○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이○○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장○○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정○○	1-2시간	진로, 사회, 과학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감각자각	9주간 27회
	조○○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중1	정○○	1-4시간	점심시간 과학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감각자각	9주간 30-40회

7 기대효과

□ MATP의 Come and Try 활동을 통해 교사의 협력교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학생은 수업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될 것이다.
□ 교사는 MATP 활동 기간 중만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또한는 MATP 활동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교육과정 병행 운영을 위한 우리학교 MATP 운영진 내부 계획서

비록 우리학교의 MATP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MATP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비공식 활동이라도 개별 교사들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지만,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이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중학과정 교사들 간의 친밀한 관계, 과거 낯선 프로그램 도전을 통해 경험한 성취감은 MATP 운영의 동기로 발동하였다. 또한 중학과정만을 대상으로 MATP를 진행했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MATP와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게 하였다.

> 우리학교의 MATP 운영진의 특징은 굉장히 민주적이다. 권위가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MATP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은 교사들에게 '우리가 고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신념을 주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의 새로운 시도에 밑거름이다. MATP는 그 연장선 위에 있을 뿐이다(9월 9일 참여관찰 필드노트)
>
> **연구자 성찰일지**

3) 함께학교

함께학교에는 교사학습공동체 회원 3명이 재직 중이다. 이 3명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학교 내에 MATP 동아리를 조직하여 MATP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가장 큰 고민은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MATP가 일회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운영진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MATP 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경험에 따르면 특수학교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매해 새롭게 실행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동아리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결국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장되지 못하고 동아리원들의 만족으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특히 자발적인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순응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함께학교 운영진은 다른 교사들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ATP를 홍보함과 동시 전체 교원들이 MATP에 대해 긍정적인 체험적 의미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다.

지속 가능한 MATP를 위해 함께학교 운영진이 선택한 방법은 학교 운동회와 연계하여 전 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 회기의 컴 앤 트라이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학교 운동회로 개최될

KOR VOICEYE voic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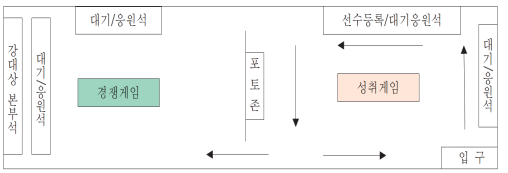
경우 MATP 동아리가 체육부의 주 업무인 운동회를 보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육부와 MATP 동아리 회원들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운동회 특성상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학생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MATP 운영진은 중증장애가 참여하는 경기 형태를 성취게임, 경증장애를 위한 종목은 경쟁게임이라고 명명하였다. MATP 운영진은 주로 성취게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성취게임에 참여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격려를 위해 학교 내 방역 직원을 특별 관중으로 초대하였다.

성취게임과 경쟁게임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MATP 지도서(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7)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운동회에 참여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은 MATP 운영진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 중도·중복학생을 위한 그것을 기본으로 만들었고. 경도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보니 교사로서 엄청난 쾌감이 들거든(10월 15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d**

코로나로 인해 동시에 다수의 학생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과정을 구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운영 시간표는 MATP 운영진의 공강 시간을 고려하여 기획하였고, 연구참여자-d는 MATP의 컴 앤 트라이, 즉 성취게임의 진행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매 차시 참석하였지만, MATP 운영진은 각자의 공강 시간에 맞춰 교대로 운영을 지원하였다. MATP 운영진은 성취게임과 경쟁게임의 세부 종목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였고, 각 학생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3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MATP 운영진은 행사의 성공을 위해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협조를 위한 사전회의에서 MATP를 설명하였다. 이는 MATP를 학교 전체에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조인력 포함 전체 학교 구성원이 공통된 연수를 듣고 실행하는 최초의 행사이었다. MATP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공감을 이루려는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노력으로 인해, 행사 당일 퍼포먼스를 펼친 학생들은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월 (10/25)	화 (10/26)	수 (10/27)	목 (10/28)	금 (10/29)
1교시 9:00~9:40					
2교시 9:50~10:30	유·초1,2,3 경기 진행				
3교시 10:40~11:20	유·초1,2,3 경기 진행			중등부 경기 진행	
4교시 11:20~12:00	초등부 점심시간			중등부 경기 진행	
12:10~13:00 초등부 4교시	중,고,전공과 점심시간				
5교시 13:00~13:4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초 4,5,6 경기 진행			
6교시 13:50~14:3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초 4,5,6 경기 진행			
7교시 14:40~15:2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 MATP 프로그램은 성취게임 스테이지에서 진행

〈그림 4〉 컴 앤 트라이 운영 시간표 및 행사 환경 구성

운동회 당일에 학생들은 레드카펫 위로 퍼레이드를 통해 입장하였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선수 등록을 하였다. MATP 컴 앤 트라이에 해당하는 성취게임은 전체 7개 종목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경기 종목에 참여하였다. 물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종목을 경험하도록 했다. 모든 경기의 퍼포먼스를 마친 후에는 시상과 함께 모든 선수에게 종합과자박스와 초콜렛 메달을 선물로 주었다.

다른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학교 구조 안에서 MATP를 진행하고자 했던 함께학교의 MATP는 비록 일주일간 일회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모든 선생님이 MATP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근간에는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이 행사 진행을 위해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희생이 깔려있다. 따라서 내년 MATP 운영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눔학교와 우리학교와 달리 학교 전체 교사가 MATP를 즐거움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함께학교의 MATP 컴 앤 트라이는 매우 의의가 있다.

2. 중도·중복장애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1) 풀지 못한 숙제 : 미로 같은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활동

(1) 현실이라는 구조적 장벽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학교 현장에서 언제나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일매일 어려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교육은 현실적 장벽에 의해 겹겹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지 않으면 중도·중복장애 교육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벽은 교사 1인당 배치되는 학생 수이다. 물론 연구참여자 중 2명은 중도·중

KOR VOICEYE voiceye.com

복장애 학생과 1:1로 한 학급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의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급에서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6, 7명의 다양한 장애 정도를 가진 학생들을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의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여기서 교사들은 주로 학습동기를 보이며,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증장애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주로 학습보조인력이 담당하곤 한다. 또한 적은 인력의 문제는 교수학습 자료 제작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추가적인 열정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연구참여자-h).

> 지적장애 3급, 즉 지금 나누기 곱하기 분수하는 애 앉아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중증장애 앉아 있죠. 돌아다니는 발달성 자폐 아이들 앉아 있죠. 끊임없이 몸 만지는 애 있죠. 자기만족 놀이. 엄청. 그렇게 6, 7명 앉혀놓은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급당 정원수 정말 줄여달라라고 하는 거죠(9월 17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 한 학급에 6명 중에 한 명이 중증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급에서 그 학생이. 아무래도 소외가 많이 되고. 소외가 되고(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b**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 상황으로 들어가면 교사의 한 단위 수업과 교수학습지도안 역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구조적인 제한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은 학급 전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학습 목표 아래 학습집단을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수립한 뒤 활동을 계획한다. 즉, 하나의 교수학습활동 아래 지도안 전체의 목표와 수행집단별 세부 목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립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 나, 다군 학생의 수행 수준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가, 나, 다군의 집단별 수업을 계획하지만 주로 가, 나군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곤 했다. 학습목표 달성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달성해야 할 목표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목표에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 나군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 중심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의 형태는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업참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 장벽이었다.

> 모든 활동에 얘가 중심이 되는 뭔가를 찾아줘야 하는데 사실은 집단 수업에서는 중증장애 학생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학생들의 목표를 잡으면 얘한테. 얘한테는. 따로 목적을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얘만을 위한 활동을 새로 짜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a**

(2)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진솔한 성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체 교수학습활동의 단계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일부 단계만이라도 참여하는 부분참여의 원리는 중도·중복장애 교육의 핵심 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g는 송편 입반죽부터 쪄내기까지의 단계로 이루어진 송편빚기 활동을 진행할 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반죽 주무르기 단계에 참여시킴으로써 부분참여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 그중에 00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송편을 이렇게 주무르는 거 정도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00이가 이것만 해서 부분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참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9월 16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g**

물론 부분참여 원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수업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참여 원리를 적용했던 과거 교육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부분참여의 원리를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던 일부 교사들은 과거에 경험한 교육활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들은 부분참여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하나의 교육목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상황에 대해 떠올렸다. 이러다 보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에서 작은 수행이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취를 발견하기보다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형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을 반성하였다. 특히 학급에서 일대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연구참여자-a는 과거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억지로 입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였다.

VOICEYE
voiceye.com

제가 중학부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난감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보통 수업에서는 그 학생이 100% 참여하기가 당연히 힘드니까 수업 내용에 진짜 일부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이제 그거라도 잠깐이라도 진짜 5분 미만이어도 얘가 그거라도 수행하면 자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얘 선에서 최대한 참여한 거다. 그래서 그냥 위안을 얻고. 그냥 그랬죠(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부분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준에 맞춰 우겨넣는데. 아이들은 즐겁지 않고 수업참여 자체가 목적이지만. 물론 가끔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힘든 것은 내가 이 아이의 성취에 대한 고려 없이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얘는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 아이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 인지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좀 약간. 미안함도 생기고,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부분참여를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한 교사들의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실제로 자신의 차별적인 시각 때문에 교수적 수정과 교수학습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차별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라기보다 미세먼지와 같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미묘한 잠재적 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과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부 죄책감이기도 했고, 무거운 마음이었다. 이러한 성찰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로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솔한 자신과의 대화였다.

애들 만나면서 항상 그 고민. 좀 중증 애들에 대한 고민. 어쨌건 한 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아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 항상 교사로서 마음의 찜찜함 그런 게 있잖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좀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수업을 학생한테. 좀 안 맞는 수업에 중증장애 학생이. 특히 지체장애 학생이 신체적 활동이 있는 곳에 애가 끼어 있으면. 사실. 내가 얘한테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지금. 얘한테 진짜 목적. 그냥 특수교육이 그런 건데. 얘한테 맞는 거 줘야 하는 건데. 안 맞는 옷을 지금 억지로 입히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a

2) 무조건적인 긍정적 박수: 의도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1) 양가적 감정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은 교사들에게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다. 물론 교사들의 일부는 이 숙제를 능숙하게 해결해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미로 속을 거니는 힘겨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 학교의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활동인 MATP를 도구로 삼아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다. 물론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 있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체육 교과에 한정된 콘텐츠이다. 또한 MATP의 활동내용을 분절해서 분석하면 이미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사들은 MATP의 기본적인 방향성,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눈에서 수업을 구성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 깊이 동감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을 넘어 학습환경을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지금까지 부분참여의 원리를 통해 전체 수업의 일부만 참여했을 뿐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MATP의 연수를 경험하고 MATP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MATP는 교사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즉, MATP의 기본 방향성과 기존의 중도·중복장애 교육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던졌다. MATP는 부분적이나마 그 의문을 해소하기에 도움이 되었고, 교사들은 대안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의미를 정립해 나갔다.

4년을 배우고 나와서. 시험을 봐서 이제 교직에 있는 건데. 거기다가 다 교직 경력 다 5년 이상에 많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그. 아까 00이 말한 MATP 정신. 근데 되게 공감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9월 13일 연구진회의)

공동연구자

VOICEYE
KOR
voiceye.com

내가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바뀌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거지. 그러니깐 특수교사로서 굉장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지. 전문성이 생기는 느낌이 나는 거지(10월 15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각 학교의 MATP 운영진은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다. 먼저는 개인주의와 보신주의 경향이 강한 학교 문화(연구참여자-b, 11월 2일, 연구참여자-d, 10월 15일)와 연구회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연구참여자-c, 10월 21일)는 코로나(Covid-19)라는 외적 변수와 결합하면서 MATP, 즉 '학생과 교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실시하는 낯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큰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학교 맥락에서 MATP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주변 교사들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MATP를 운영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특히 한, 두 명만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다른 선생님의 참여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불평까지는 아닌데 '왜 이걸 할까?'라는 의문을 저한테 쪽지로 주신 분도 있고(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일단 저희 학교에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사실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중간에 시간을 빼서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하지만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과 그것을 운영할 것에 대한 기대로 차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난 것 자체에 대해 기쁨을 느끼거나(연구참여자-b, 10월 21일, 연구참여자-h, 9월 10일, 연구참여-d, 10월 1일), 자신의 전문성 향상(연구참여자-a 11월 1일, 연구참여자-c, 10월 21일, 연구참여자-d, 10월 25일), 학내 MATP의 운영을 통해 운영진과 다른 교사들에게 인식 변화의 계기(연구참여자-d, 9월 13일, 연구참여자-h, 10월 15일),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특성화(연구참여자-d, 9월 13일) 등 저마다 다른 이유지만 분명히 MATP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처음 MATP 설명을 들었을 때. 아! 학생이 자꾸 배제되는. 뭐 억지로 지체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교육목표에 얘가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위한 교육목표로 체육활동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중략) MATP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a

우리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모든 지원인력이. 모든 경도 학생들이. 중도·중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미 목표 달성이야. 왜?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운영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거든(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MATP를 하는 동안에 교사는 확실히. 중도·중복 장애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2) '보임'의 메커니즘

연구참여자들에게 MATP 연수, 혹은 프로그램 운영 이전과 달라진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학생의 동작 변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표현하려는 노력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전에는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미세한 질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나도 연수를 받고 학생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반응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문화로 잘 자리 잡게 되면 교육적 문화가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수업 때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리액션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그 친구가 하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는데. 그 MATP 이후에 이제 그 친구를. 또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볼 기회가 요 근래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00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친군데. 얘는 공을 던

VOICEYE voiceye.com

져서, 방향이랑 거리를 다 이렇게 맞춰서 공도 넣을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줄 밀고 가는 것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밀어서. 밀어서 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 바톤을 이어가는 행동, 활동도 걔는 별다른 신체적 촉진 없이 그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g

차이를 보게 된 교사들의 변화는 MATP의 특징인 '박수', '주인공'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MATP는 스페셜올림픽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스포츠활동이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을 선수라고 부르는 동시 그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펼치는 주인공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모두 선수인 동시 퍼포먼스의 주체이다. 선수에게 성취를 위한 응원과 박수를 쳐주듯, MATP는 선수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도 격려와 환호, 그리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초기 교사들은 교육 영상에서 봤던 기억을 더듬으며 의무감에 이끌려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다. 하지만 점차 교사들은 반응의 타이밍을 고민하였다. 모든 상황에서 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박수의 의무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움직임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였다. 이전에는 지나쳤을 학생의 행동이라도 더 밀도 높게 관찰하였다. 그러자 교사들의 눈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미묘한 움직임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도 분명 시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다. 학생을 위에서 내려보지 않고,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휠체어와 눈높이를 맞추자 미세한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만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선수를 향해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교사 주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리액션을 언제 해야 될지. 우와 막 잘 했어.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도중에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얘를 칭찬하기 위해서 더 세세하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작 하나도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뭔가 해줘야 되니까. 내가 반응을 해 주려면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있어. 지나쳤던 행동도 의미 없는 손짓 같아 보여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10월 21일 나눔학교 FGI)

연구참여자-b

이러한 학생들을 향한 공감과 격려의 박수는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몸의 가능성을 고양시키는 도구였다. 조건의 수행에 대한 반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환호는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켰다. 동시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향한 교사의 기대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쳤던 박수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작은 박수가 궁극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행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학생의 성취를 향상시켰다. 이 지점에서 미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가 살아났다. 교사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법한 활동들이 사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심의 활동들은 다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교사는 비로소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더 이상 학생의 수행 실패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지 않았다. 의도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주인공처럼'이 아닌 '진짜 주인공'이 되었다.

> MATP가 저를 많이 이렇게 깼어요. 저도 그때 입장하는 것부터. 그거 짤 때 나의 환호만으로 애들이 참여할까. 우리 00이가 그렇게 등 돌려가지고. 발로 축구공을 찾을 거란 기대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 학습자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게 나의 호응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많이 깰 수 있었던. 교사를 깰 수 있었던 측면에서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9월 17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 확장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동안은 그냥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텐데. 도대체 뭘 해?'였다면 이제는 '아 이것도 할 수 할 수 있겠네. 이것도 할 수 있겠네!'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확장된 것 같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b**

보임의 메커니즘의 순서는 의무적 박수 → 교사의 시야 확장 및 의미 부여 → 학생의 수행 향상 → 학생 중심 활동 구성 → 학생의 수행 재향상 → 학생 중심 활동 재구성 → 응원의 박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기계적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 순서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임의 메커니즘은 교사의 의무적 박수가 시발점이다. 박수는 하나의 행위지만 그 안에는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태도(uncondition

KOR VOICEYE voiceye.com

ed positive regards)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명제적 지식으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긍정적 반응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대해 책이 아닌 실제 지도 상황에서 체험한 것은 학생과의 상호작용 증진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 어떤 사람이 보면 MATP가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과정. 사범대 공부하면서 교육과정에 배웠던 '교수자가 어떻게 학습자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대해 주고.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르다. 명백하게 무엇이 다르냐. 같이 했던 컴 앤 트라이에서 그 교수자가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액션이, 다음 수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자가 영향을 받더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3) 연대의 힘

교육활동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들은 연대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집단지성은 아이디어 산출과 정보 공유, 문제의 공동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지지는 지칠 때 서로를 끌어주는 힘이다. 특히 해당 집단의 성공 경험은 추후 집단의 재도전 동기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연대를 구축하였다.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와 다르게 3개의 학교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통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MATP의 실행이 진행될수록 학교 운영진들은 각자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MATP를 진행하였고, 이는 모든 교수학습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익이 되었다. 즉, 이질적인 학교의 특성, 그 특성에 따른 현실 가능한 MATP 운영방식, MATP 성과 나눔 등은 정보 공유만으로 3개 학교의 MATP 운영진이 각자의 실행의 과정을 돌아보며 학교가 마주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 학교의 MATP 실행과정은 생생한 실천적 지식을 생성함과 동시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보여줌으로써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 특히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MATP 현장지도자는 MATP 운영진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지금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진짜로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녹이거나 체육대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10월 1일 2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c

복지관에서 하신다는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챌린지데이 때. 이제 학생이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더니. 너무 오래 지체되고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더니 그분께서. 그것도 조차도 과정이고. 스포츠도 당연히 누구나 성공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MATP 할 때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000선생님이 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빡시게 회의를 하지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들었어야 했네요(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교육적 연대는 학교 간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MATP 실행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했다. 각 학교는 MATP 실행을 위한 자체 동아리를 만든 뒤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이외에도 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방역요원 등 다양한 교직원을 추가 인력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의 구성은 MATP 운영진이 학교·교직 문화, 구조적 장벽과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극복해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되었다.

MATP 운영진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을 매개로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 MATP 운영을 위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나눔학교의 경우 MATP 동아리가 아님에도 자발적인 지원을 해주는 교사들의 도움을 우연히 받았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나눔학교의 든든한 MATP의 실행 기반이 되었다. 개별 교사만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안에 자발적 참여가 발생하면서 더욱 풍성한 공동체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공동체는 비공식 조직으로 언제든 쉽게 와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뚫고 공동으로 성취한 경험은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씨앗'으로 심어졌다.

KOR VOICEYE voiceye.com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게 맞는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000부장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특지사(특수교육지도사)한테도 연수에서 보여줬던 영상? 너가 했던 영상? 유튜브 영상? 사복(사회복무요원)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방역팀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연수가 이렇게 다 된. 연수가 풀타임으로 다 된 연수는 저희 역사상 없어요. 모든 직종에게 연수를 하고 이걸 진행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아까 박수를 쳐주신 거죠(10월 25일 함께학교 FGI)

연구참여자-d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을 했고 그걸 느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9월 10일 1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3) 해체의 시작 : 인본주의 교육실천

(1) 벗겨지는 정상성 신화

교사들의 앞선 경험과 같이 교육적 차이의 발견은 학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경우 그 차이가 손톱이 자라나는 것처럼 미세하므로, 차이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는 3개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한 이유와도 맥이 닿는다. 그렇다고 해서 MATP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콘텐츠 측면은 더욱 그러하다. 다만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호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 방식은 교사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특수교육의 기본을 일깨워주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도 충분히 환경 수정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지를 자각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안 줬고. 이거를 준비해도 걔네들은 어쩌면은 못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MATP를 통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환경을 좀 바꿔보면은 얘네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진짜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간과했던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느낌인 거지(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내가 변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하겠어?'라는 나의 한계점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거 보고나니깐. '어!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9월 9일 우리학교 FGI)

연구참여자-h

MATP라는 공간의 주인공은 선수이다. 선수를 위한 활동과 절차, 상황이 기획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MATP를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수에게 내어준다. 선수들은 성취의 박수를 받을 때 지도자는 주변부에 서서 환호를 한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MATP를 통해 '교육적 주체'로서 학습기회를 부여받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선수 중심의 구조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 구성된 교육적 환경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이 '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일부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킨 교수학습계획은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는 기존 수업 구성의 틀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물론 학급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목표 아래 집단을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MATP처럼 개별 목표 수행 방식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MATP를 통해 교사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즉 수업의 중심을 분산시켜 실제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수업 계획의 무게중심이 하나의 목표에서 도처로 분산되었다.

대신에 MATP 같은 경우에는 좀 포커스가 완전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짜 얘네들이 체육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그 반 아이들도. 정말 가, 나, 다에, 3 곱하기 3 틀 안에 걔네를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 근데 그 3 곱하기 3 틀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반이 이제 000선생님 반이거든요. 00이, 00이, 00이. 그 친구들은 명확해요. 가, 나, 다가 명확하고. 학습 수준도 명확해요. 구

VOICEYE voiceye.com

분이 됩니다. 근데 000선생님 반만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g

보통 한 스테이션을 3개 정도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이동 기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휠체어 탄 친구들. 상지기능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수동 휠체어로 한번 밀어보는 거 하고. 저희 꼬깔콘 위에 세워놓고 공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는 공 들고 저희 골대 같은 거. 낮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휠체어 탄 친구들은. 그리고 아예 못 움직이는 친구들은 공 들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거를 진행해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i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모든 학생이 동시에 교육적 주체가 되는 교실환경은 이상적인 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업의 중심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흩트리는 것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일 수 있다. 또한 간헐적이지만 연구 수업처럼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업의 구성도 시도해볼 수 있다. 우리학교의 사례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더라도 충분히 경증장애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을 시도할 때 의도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의미의 발견은 차이가 발생할 때 시작된다.

중증장애 학생들도 수업에 한 역할을 가진 주체로서. 물론 수업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수업을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다면 연구 수업의 목적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들도 반에서 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2) 나와 교육활동의 일체화

MATP는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성취 경험의 계기이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교사들은 전문성을 획득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기획한 내용과 그들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안한 수정과 변형된 프로그램, 학생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박

수와 응원의 힘을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MATP 지도 행위가 본질적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특수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특수교육다운 교육활동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 나는 특수교사로서 처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분? 오랜만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니. 아이들을 따로 배제해서 무언가를 막 계속 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 속에서 하나 또는 따로. 또 같이 하는 느낌이었으니까(10월 29일 전화통화 내용)
>
> **연구참여자-d**

> 마음에 좀 보람이 있죠. 만약에 그냥 수업.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수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수업을 좀 더 학생에게 맞게. 정말 특수교육답게 해줬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수교육이 사실은 원래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합동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는 너무 심한 중증·장애 학생은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 활동이. 모든 활동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잖아요(11월 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a**

스포츠 상황을 기반으로 구성한 MATP에서 학생의 퍼포먼스를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코치가 선수를 바라보는 것과 유사했다. 외부자의 눈에는 너무 단순한 활동으로 보이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노력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수행에 깊이 몰입했다. 학생의 성취는 곧 교사의 성취와도 같았다. 교사는 퍼포먼스에 성공한 학생을 보며 기뻐서 뛰고, 환호하며 울컥하기도 했다. 이 순간만큼은 학생과 교사가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었다. 학생의 성취에 대한 몰입은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교수활동이라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교수활동의 대상인 학생과 일체화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일체화는 매우 은밀한 순간 발생했다. 둘만 알 수 있는 깊은 공감의 순간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실존적 만남으로 이끌었다. 즉 MATP의 실행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영혼을 배려하는 실천행위였던 것이다.

>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말 못 하는 초등 저학년 한 명이 농구공을 탁 넣고 절 보면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KOR VOICEYE voiceye.com

농구공 탁 놓고 제가 막 '와와와!' 막 이렇게 좋아해 줬는데. 그다음 농구공을 넣은 다음에 저를 딱 보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와와와!' 해줬을 때, 씩 웃으면서 다시 농구공을 막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11월 9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인간 대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막 선생님이라서. 내가 너무 너를 가르쳐서 잘했어. 막 너는 나의 코치로 이거를 성취한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11월 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그 아이를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은 그 친구가 온 힘을 다해서 한 행동임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렇게 공감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대견하고. 대견한 애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치유받고 그렇더라고요(9월 17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h

(3) 벽을 넘어 퍼지는 소문

본 연구에서는 3개 학교가 각기 다른 형태의 MATP를 운영했다. 프로그램 진행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충분한 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시행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3개 학교 MATP 운영진은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8명과 함께 각 학교 MATP 운영진과 동아리 회원, 혹은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와 자원봉사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방역요원)까지 포함하여 약 30명이 넘는 교직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여자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성에 기초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의 필요성에 동의한 자발적 참가자이었다. 참가자들은 MATP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즉 중도·중복장애인의 몸을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몸이 아닌 적절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몸'으로 이해하였다. 30명은 3개 학교 교직원의 수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에 대한 대안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 얘가 이거를 진짜 재미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 확실히 그냥 몸이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되는구나?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니까. 그래도 점심시간을 시간 쪼개고 막 이래서 같이 했는데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11월 4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q(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안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그럼 하지 말지 뭐.' 이러고 또 이제 다른 거 해버리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000선생님이랑 공 던지는 거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얘가 계속하면 뜨문뜨문이지만.' 화목 이틀이었잖아요. 뜨문뜨문이지만 계속하면 던지는 자세도 바뀌고 던지는 힘도 생기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했었어야 하는구나.' 내가 너무 일찍 내려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11월 2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j(동료교사)

오늘 음악 시간에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북을 한 번 치더라도 정말 옆에서 반응해 줄 수 있고, 호응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것들을 조금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MATP) 경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맞춤 교육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11월 4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n(특수교육지도사)

MATP에 대한 만족도는 MATP 운영진을 넘어 학교 전체로 조금씩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MATP와 결합한 운동회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결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MATP와의 접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내년에도 MATP와 결합한 형태의 운동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는 방역직원들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피드백은 MATP의 소문이 퍼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KOR VOICEYE voiceye.com

사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교직원들이 한 22명 정도 응답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한 80% 이상은 내년에도 이런 미니올림픽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MATP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왜냐하면, 중증장애 학생들이 실제로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너무 즐거운 체육대회였던 것 같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이 학생은 하교 후 매일 물리치료, 작업치료 후 귀가하는데, 중증장애가 있다 보니 학교와 치료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 울면서 집을 들어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MATP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미니올림픽을 했음을 말해주자, 금목걸이와 꽃다발, 상품도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니올림픽 참여 사진을 보시고 '우리 00이 너무 예쁘네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하교할 때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해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인데 활짝 웃으며 귀가를 하였다니 두 시간을 위하여 준비한 한 달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11월 5일 연구참여자 성찰일지).

연구참여자-f

물론 지금까지는 MATP의 빛나는 면을 살펴본 것이다. 모든 것에 명암이 있듯 MATP 운영에 대한 어려움 역시 산적해 있다. MATP의 실행을 사람이 하듯 MATP의 어려움 역시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 교육과정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함께학교를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MATP 운영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내비쳤다. MATP가 가진 가치와 장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위한 수고스러움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 너무 공감하고. 이번에 하면서 잘 느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려면 지체반,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 반이 따로 구성되거나.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11월 2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 MATP를 올해 중학부에서 적용을 했는데 내년에 이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 가면 음. '어떻게. 이 MATP라는 게. 그대로 이 공간. 이 학교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죠. 우리도(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
> **연구참여자-h**

MATP의 재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는 MATP가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선수와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3개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자발적인 교사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약 30명이 넘는 교직원이 단합하여 능동적으로 MATP 운영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 이뿐 아니라 MATP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동료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인력에게 공감대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비록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겹겹으로 높이 서 있으나 MATP에 대한 웃음소리만큼은 그 너머로 퍼지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료담론 아래 '할 수 없는 몸'으로 재현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의 의미를 해체하고, '할 수 있는 몸'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A도의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협력하여 MATP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 특성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실행된 MATP는 모든 연구참여자를 반성적 사고로 이끌었다. MATP를 실행하면서 연구참여자는 계획의 수정과 실행을 반복하였고, 이런 순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다. 이 성찰은 교사에게만 그친 것이 아닌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의 의미가 '할 수 있는 몸'으로 재형성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록 학교 안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존 담론이 대안문화와 교섭하는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에 대한 인식이 재건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실천적 행위의 실행을 통해 자기변혁을 이루면서 새로운 주체성과 조우하게 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KOR VOICEYE voiceye.com

1. 권력의 이양 : 보이는 차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인다는 것, 즉 가시성(visibility)은 권력과 결부되어 이해되어 왔다. 권력을 가진 자의 눈에는 이미 감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시선이 그렇지 못한 자에게 닿으면 그들은 통제받는다. 대표적으로 Foucault는 파놉티콘을 통해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원리에 따라 피권력자가 규율권력을 내면화하고 순응하는 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공간, 나아가 우리 사회 전역에 파놉티시즘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가시성을 조금 비틀어서 이해하면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현준(2021)은 '공간과 권력의 제1원칙'으로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곳에서 권력이 발현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다수의 시선이 모이는 곳을 향해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 내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사회에서 장애인이 가지는 권력이 작음을 함축한다.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서도 가장 권력이 적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

MATP를 기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보임'이다. 분명 학생들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오늘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교사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가진 의미가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찰에서 보임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임의 권력에 따르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진 움직임의 의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보여야 한다. 다른 말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권력은 낮아지고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권력을 얻어야 한다. 큰 권력 앞에 작은 권력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표현하는 움직임의 의미는 뜨거운 격려가 동반된 '의도된 타자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교사가 가진 권력 중 일부가 중증장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양(移讓)되어 드러난 것이다. 학급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 참여가 아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계획한 교육환경과 활동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무대 위에 올라선 주인공이며, 그러한 시선 속에서 교사들은 차이 곧 학생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2. 역발상의 접근 : 도처로 흩어진 교육실천의 중심성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 계획은 교육적 목표, 즉 달성하기 위한 한 단위의 수업 목표에서 시작한다. 학습목표가 수립되면 목표와 관련 있는 학습경험을 계획한다. 그리고 학습경험을 조직할 때 관례적으로 가, 나, 다군으로 학습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에 필요한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절차이다. 주로 다군에 포함되고 전체 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서 부분참여의 원리를 적용한다. 전체 활동 절차에서 일부 단계라도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계획 절차는 표면적으로 매우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Tyler 목표중심 교육과정 모형을 하나의 수업단위에서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목표의 달성을 수업의 궁극적 미덕으로 간주하는 경향(박채형, 2008, p 28)'을 지향한 수업 디자인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실, 교육과정과 단위 수업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운영방식의 이면의 논리를 살펴보면 방향과 속도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계획 초기에 설정한 전체 학습목표는 어느덧 하나의 도달해야 할 규준이 되고, 교사와 학생들은 합리성이라는 틀 아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현실적이지만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절차가 어떠한 기준 안으로 활동이 포섭되도록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어딘가 도달해야 할 규준과 같은 정상성을 향해 교정, 치료,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장애담론 중 의료모델과 그 맥이 닿아있다(Degener, 2016). 문제는 여기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규준에서 가장 멀리 있고,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하나로 정해진 방향을 향해 걸어갈 경우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다.

MATP를 통해 교사들이 경험한 것은 수업 목표에 대한 중심이 흩어지는 것이다. 즉, 수업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가운데로 들어선다. 그리고 권력의 이양으로 인해 드러나는 차이를 기초로 하여 그들에게 최적화된 활동을 기획한다. 단순히 기능적 향상을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적 피드백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즉, 이러한 과정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을 주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하위문화로 인정하는 것이다. MATP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부분참여가 아닌 완전 참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MATP의 관점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지 않는 대신, 사회적 장벽의 해체를 요구하는

KOR VOICEYE voiceye.com

사회모델(social model)과 그 결을 같이 한다(Shakespeare, 2006/2013). 분산된 중심은 위, 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의 고정된 중심성을 향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린 것이 아닌 도처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교육실천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기획될 경우 실행가들은 '과학적'으로 보이는 교수행위로 인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과학이라는 천으로 몸을 두루면 학교의 경영이 비능률적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한다(Eisner, 1979/1983, p 147) ."와 같이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싶은 학교장처럼 말이다. 하지만 단일한 중심성을 지향하는 것은 Tyler 식 교육과정 모형이 교육활동을 수단으로 삼아 목표 달성에 집중한 것과 같이 특정 규준을 정해 놓고 동일성 안으로 포섭하는 의료담론의 작동 기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ATP의 실행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수업의 중심성을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흩어버릴 경우 수업의 체계성을 일부 상실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이 가진 차이가 드러나도록 한다. 학생마다 드러나는 차이자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Deleuze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의 발견은 곧 기존의 지배적인 도식을 무너트리는 힘이자 새로운 앎을 제공한다(박영욱, 2009). 도처로 흩어진 중심성으로부터 차이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결국 특수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자 새로운 앎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단연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내 존재하는 다름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적 행위는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총체성에서 벗어나 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실천을 호소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3. 인식과 실천 - 실행을 통한 자기 배려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기존의 황상현 외(2020)의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할 수 없는 몸'에서 '할 수 있는 몸'으로 재구조화되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MATP의 특징들은 스포츠 상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미 교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다. 당사자 중심의 교육활동,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은 특수교육 전공 4년의 학부과정과 임용 시험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접했던 지식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과 격려가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의 격률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왜 교사들은 MATP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의 확장과 교사로서의 위로를 경험하였을까? 이는 Foucault가 제안한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Foucault, 2001/2007).

자기 인식(Gnothi seautin-너 자신을 알라)은 '데카르트의 순간' 이후 자기 의심 없는 자명성을 지향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자기 인식은 철저히 자기 배려 안에서 허용되는 하나의 결과이었다. 자기 배려가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 역

시 올바른 행동과 연계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진실한 주체성은 인식하는 것을 행위로 옮길 때 형성된다. Foucault는 이러한 관점을 확대하며 행위를 통해 생산해내는 주체성을 강조하며 행동철학을 제안한다. 고대인들이 주체에 대해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나는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이 실천해야 할 행동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발견하여 자기 배려에 입각해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Foucault가 주목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주체화 방식은 자기배려의 정언적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가 아닌 '자신이 잘 행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Foucault, 2001/2007).

MATP를 운영한 교사들은 이미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실적,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이상으로 인식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된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특히 효율·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교수학습지도안과 부분참여 원리는 특수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식형태이고, 그 외에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다.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지식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유리된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였다.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보면 MATP 기획, 관리, 운영 등의 모든 절차는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자발적으로 형성한 각 학교의 운영진이 가지는 근원적인 조직의 불안정성은 MATP를 운영하는 교사를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를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교사에게 이러한 성찰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나는 어떻게 MATP를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까웠고, 실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나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변화된 주체성을 형성해나갔다면, MATP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행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진심어린 박수와 응원을 통해 지식과 행위가 일체화됨을 경험함으로써 특수교사로서의 고유한 주체성을 구축하였다. 이는 주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 몰두한 것이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배려의 행위이었다. 자기 배려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은 타자인 학생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하나의 통일화된 주체성이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문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KOR VOICEYE voiceye.com

이 연구는 의료담론에 의해 은폐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가진 몸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비판적 실행연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구진은 MATP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계획된 타자 중심의 교육활동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별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MATP를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학급 내 권력의 이양을 통해 학생의 변화에 가시성을 부여했고, 전체 학습 목표가 아닌 개별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교수학습활동의 중심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을 '할 수 있음'으로 인식하면서 사회 내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끊임없는 실행과 반성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타자 중심의 교육 실천은 단순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진실한 주체와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이 연구에서 MATP의 실행은 3개 학교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실천지를 발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MATP 실행에 대해 일회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종단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담론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특수학교와 사회의 연결지점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 내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는 특수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태를 묘사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는 교사들의 실행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도·중복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실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사회의 불평등을 성찰하고 해소하려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진실한 나, 고양된 영혼을 가진 주체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구, 이하영, 복헌수, 권휘정, 임경원. (2019).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2), 135-155.

고진복, 이경일, 전병운.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험: 현상학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405-429.

국립특수교육원. (2012).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2013).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초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김미옥. (2009).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61(3), 179-204.

김은주, 강영택, 권택환, 이인.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1), 163-185.

김정연, 박은혜, 표윤희. (202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개선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5(4), 83-113.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나인정, 이미숙. (2021).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중도·중복장애 학생 통합교육 경험 및 지원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1), 135-154.

박경옥. (201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18(2), 259-282.

박선미, 김은라, 박재국. (2020). 중도·중복장애학생 수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지원요구. 교육혁신연구, 30(3), 1-21.

박영욱. (2009).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경기: 김영사.

김주선, 한경근. (2018). 중도·중복장애 관련 장애 명칭과 교육 특성 분석: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3(2), 207-229.

박채형. (2008).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 : 매력과 함정. 도덕교육연구, 20(1), 27-48.

성열관. (2006). 교육과정 실행연구의 성장과 주요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24(2), 87-109.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7). 중증발달장애인운동프로그램 MATP 지도서. 서울: 한림기획.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2019스페셜중증발달장애인운동프로그램 지도자 세미나. 서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SOK 종목별 영상 매뉴얼. 서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여형남, 박혜인, 신정순 (201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283-294.

유현준. (2021). 공간의 미래. 서울: 을유문화사.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 방법. 서울: 학지사.

이희연, 김경양, 표윤희. (2018).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25(2), 152-175.

정낙림. (2006). 주체의 계보학. 철학연구, 98, 269-294.

조용환. (2015). 현장연구과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서울: 학지사.

표윤희, 이희연, 김경양. (2017). 일반학교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 경험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2), 33-61.

황상현, 한범석, 노형규. (2020). 중증장애인운동프로그램(MATP) 참가자들의 경험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8(2), 85-103.

황상현, 노형규. (2021). 발달재활서비스에서 건져 낸 특수체육의 가치와 가능성: 성인기 자폐성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경험 이야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99-116.

Boyd, K. A., & Goodwin, D. L. (2019). “It’s hard when people try and get their kids a way from cole”: A family’s experiences of (in)dignity in leisure setting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36,* 223-241.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Lewes, Sussex: Falmer Press.*

Degener, T. (2016).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Laws. 5(3)*, 1-24.

Eisner, E. W. (1979).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이해명 역.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Feiman-Nemses, S., & Floden, R. E. (1986). The culture of teaching. *NY: Macmillan P*

ublishing Co.

Foucault, M. (2006).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역. 서울: 이매진. (1963).

Foucault, M.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서울: 동문사. (2001).

Greenwood, D. J., & Levin, M. (2007). 사회개혁과 교육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입문. 변기용 역. 서울: 학지사.

Shakespeare. T. (2013). 장애학의 쟁점. 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09).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London: Sage.*

Special Olympics. (2005). Special Olympics Motor Activities Training Program Coaching Guide. Retrieved from https:/digitalguides.specialolympics.org/matp/index.php?_ga=2.3224816.1519834408.1585273818-873047244.1584774303#/2.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voiceye.com

Abstract

Critical Action Research for Alternative Special Education Practice

: Focusing on sports activitie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ang-Hyun Hwang*·Jeong-Hwan Jeong·Gun-Hwan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ealing the potential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 ple disabilities(SMD) hidden by medical discourse and forming a alternative discourse call ed 'A body that can do it'. To this end, a critical action research as a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o directly fac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s surrounding on-the-ground problems, and to deconstruct and reorganize it through practical actions. Research team and a teaching-learning community(TLC) implemented a sports activity cal led 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MATP) for students with SMD. 8 members of the TL C, 4 fellow teachers and 6 assistant staffs, a total of 18 participants were selected. In-dep th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ere conducted for dat a collection, and research participants' reflection diaries, regular meetings of the TLC, an d MATP operating plans and result report documents were also collected. After all the res earch data was transcribed, it was analyzed using the 6-step thematic analysis process of idiographics among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he char acteristics of each school's MATP oper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research pa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h.D. Candidate
** Chuncheon-dongwon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octoral student

rticipants' perceptions of educational activities with SMD. The categorical words of the c ognitive change process were 'Unsolved problem: teaching-learning activity(TLA) with SM D like maze', 'Unconditional positive applause: Intentional others-centered TLA', and 'Th e beginning of deconstruction: Humanistic educational practice'. The implementation of others-centered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with SMD had a number of limitations in reality. Nevertheles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TP, the research participa nts gave visibility to changes in students through the transition of power within the class, and dispersed the center of TLA while establishing goals that individual students could pe rform rather than the overall learning goals. The participants in MATP recognized the bo dy of the student with SMD as 'can do it',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alter native discourse about persons with SMD. At every moment, the research participants co nstantly repeated execution and reflection. Others-centered educational practice was not only an educational act for students with SMD, but also changed the teachers themselves, leading encounters with genuine subjects. A person who experiences SMD can be reborn as a 'can-do subject' through practice to remove social barriers. This benefits not only p eople experiencing disability but also the doer. Thorough practical actions to reflect on a nd resolve social inequality, citizens of modern society will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 he true subjectivity and the subject with an enhanced soul.

Keywords : Critical Action Research,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y(SMD), Teaching-Learning Community